

예수 부활 대축일

제 1 독서 : 사도 10, 34 a, 37-43

제 2 독서 : 골로 3, 1-4

복 음 : 요한 20, 1-9

순정이

“사람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지만
하느님께서 그분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고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사도 10, 39-40).

부활절 메시지

부활 대축일을 맞이하여

전주교구장 이 병 호 주교



친애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올 신부님들과 수도자 여러분!

금년의 부활 축일은 특별한 의미를 띠고 우리 앞에 밝아왔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근대의 가장 위대한 교황 가운데 한 분이신 레오 13세께서 유명한 「노동헌장」을 반포하신 지 꼭 100주년이 되는 해에 우리가 이 축일을 지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금년을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의 해'로 선포하시고, "이로써 신자들이 회칙 「노동헌장」을 기념하는 취지에서 사회문제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에 관해 더욱 잘 알고 그 가르침을 발전시키며 널리 전파하도록 당부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 죽음 및 부활과도 떼어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이 문제를 두고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회문제에 관한 가톨릭 교회 가르침의 역사에서 효시를 이루고 있는 「노동헌장」은 세워

그러나 참된 종교, 특히 그리스도교는 이런 것과는 정 반대입니다. 그것은 타고난 이기적 성향과 자기 자신의 안보만을 걱정하는 식의 삶을 포기할 때, 즉 생명을 버릴 때에만 얻을 수 있는 생명이며, 이기적 성향의 생명을 얻으려 하면 잃을 수밖에 없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것은 또 세상을 밝히는 '빛'이요, 사회를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이며, 사람들이 자기 앞가리기에 급급해 있을 때 진정한 삶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뚜렷이 보여줌으로써 세상을 인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산 위의 도시'인 것입니다. 빛과 소금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밝혀주고 부패로부터 구해주어야 할 주변 세계를 위해 있는 것처럼 교회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를 위해서만 그 존재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사람의 관심을 자신 밖으로 향하게 해야 하고, 종교를 성전 안에 유폐시키려는 유혹을 단호히 거부해야 하는 종교인 것입니다. 유명한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도 우리는 이를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강도를 당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못본 채하고 멀리 비켜서 지나가버린 사람은 묘하게도 종교의 전문가, 성전 안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통하는 제관이었습니다. 레위인 역시 제관을 도와서 제사를 드리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요컨대 종교를 성전 안에 유폐시키고 종교인이 바깥 세상, 사람들의 사회에서 해야 하는 일의 종교적 혹은 신적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인간들의 표상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큰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사람처럼 위급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만일 그것은 종교의 소관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무심히 지나치고, 이른바 종교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일에만 전념하기로 한다면 우리는 비유 속에 등장하는 제관과 레위 사람과 다를 것이 조금도 없을 것입니다. 교황 레오 13세께서 노동자의 권리, 노사간의 관계, 걱정된 임금 등의 문제를 거론하며 「노동현장」을 발표하셨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교회의 고유한 영역이 아니라고 비난했고, 더 많은 사람들은 이를 위태로운 것으로 생각하여 불안해 하고 의심했으며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아원이나 양로원 등 불우시설을 통하여 이른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판의 소리를 가운데에는 참으로 경청하지 않으면 안될 내용들도 있었고, 사회 정의를 위해서 투신한다는 사람들의 태도나 행동 방식들 가운데에는 재고하고 바로잡아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야의 투신에는 복음을 순전히 현 세적이고 인간적인 목표로 제한해버리려는 태도, 이른바 수평주의의 위험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회문제에 관한 교회 가르침의 해'를 맞이하여 몇 가지를 분명히 해두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정치적인 성격을 띠는 분야의 문제들이 아무리 까다롭고 위험하기까지 하다 하더라도 신앙인으로서 그것을 외면할 수는 없는 일이며, 이 문제들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은 100년의 역사를 가진 만큼, 우리가 그 안에서 매우 현실적이고 중요한 지침을 찾아내어 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여러 문헌들, 특히 「현대 세계의 사목현장」과 「민족들의 발전」 등 공의회 이후에 계속 발표된 이 분야의 수많은 교회 공식 문헌들은 우리에게 귀중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둘째, 이들 문헌을 통한 교회의 가르침에 따르면 가톨릭 신앙인으로서 사회문제에 응분의 관심을 가지고 헌신하는 일은 각자의 기호나 성향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선택 사항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모범으로 가르쳐주신 바 그리스도교 신앙 자체와 뗄 수 없는 관계를 지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들 문헌에 따르면, "정의를 위한 행동과 세계 개혁 활동에의 참여는 복음 선포의 본질적 구성 요소임이 명백하다"(세계 주교대의원회의 제2차 총회 문헌-세계 정의에 관하여-서문)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의 문헌들에 의하면, "가난한 이들의 편에 서기로 하는 우선적 선택"이 전세계 모든 교회가 보편적으로 선택해야만 하는 기본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따라서 어떤 지역에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교회를 놓고 그리스도의 본래 정신에 비추어 그 건강 정도를 알아보고자 할 때, 그 가장 확실한 척도의 하나는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받는 사람들, 즉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 실직자, 노인, 즉 경제적인 시각에서 볼 때 별 의미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부담만 된다고

냉철한 반성의 겨를이 없이 추진해왔던 현실 참여 과정에서 저질렀던 실수나 과오들을 만회하고 한층 더 성숙한 자세로 본연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친애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영세자, 사제와 수도자 성소의 증가, 그리고 물질적 풍요 등으로 인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순례자로서의 자기 처지를 망각하고 어딘가에 안주하고 싶어하는 인간적 경향 쪽으로 밀려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와는 인연이 먼 교회의 모습을 띠어가고, 교회 자체의 테두리 안에서 불편없이 사는데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그런 면들이 있었다면 그 형편을 그대로 둔 채 십자가와 부활은 말하는 일은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따르는 그리스도는 누구이며 어떤 길을 가신 분입니까? 그분은 당대의 종교인들로부터는 하느님을 모독한 죄인으로, 정치가들로부터는 정치적 선동가로, 사회의 점잖은 사람으로부터는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으로, 민중들로부터는 자기들의 기대를 채워주지 않는 거짓말장사로 몰려 결국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어가신 분입니다. 그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부활을 향한 도정에서 배놓을 수 없는 것이었으며, 따라서 십자가 없는 부활은 씨 뿌리지 않은 수확만큼이나 불가능하고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로 사도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선포할 따름입니다"(1고린 1, 23). 그리고 이를 늘 기억하기 위해서 미사 때마다 "우리는 주의 죽으심을 전하며 주의 부활하심을 굳게 믿나이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회문제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의 해'인 금년 부활을 기해서 우리가 자신만을 땀으로 관심의 테두리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처럼 이웃과 사회를 향해 눈길을 돌리고 거기 따르는 불편과 어려움을 감수하기로 할 때, 우리는 참으로 부활하신 분의 생명을 자신 안에서 느낄 것이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이 세상, 이 사회에서 계속 살아 그 빛을 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기뻐합니다” (로마 5, 3).

부활을 사는 사람

전북 장수에 가면 박종민(가브리엘, 38세), 강복희(배아마, 41세) 부부와 그의 가족들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것은 그들이 재산이 많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가 사람들에게 할 말을 잃게 하고 씩씩한 희망을 주기 때문이다.

박종민, 그는 후천적 맹인이자이다. 1974년 12월 군에 입대, 75년 12월 ‘눈물의 한탄강’, 철쭉 같은 밤, 살을 에는 듯한 강풍, 야간 훈련, 실족, 추락, 기절... 이때부터 그의 고통은 시작된다. 전역 후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78년 25세의 나이로 맹인이 된다. 어느 날 갑자기 맹인이 된 사람들의 고통을 우리가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그는 “화장실에 가도 문지방이 나를 넘어지게 만들었고, 마루에 가도 기둥이 이마를 찢어 놓았으며 땃줄에 내



려서기가 무섭게 나뒹그러져 나는 ‘주님, 차라리 저를 죽게 해주십시오!’ 외치며 하느님께 대를 었었다. 그뿐이 아니다. 그는 저 집은 불행의 표본이라며 빈정대는 사람들의 소리, 외아들로서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고통, 임종을 기다리며 ‘오 주님, 차라리 나의 눈을 뽀서 저 애에게 주십시오!’ 하시는 아버지의 애틋한 기도를 듣고 하루에도 수십번씩 이승과 저승을 들락거리며 절규했던 시절을 생각하며 ‘하느님이 아니었다면 난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한다. 아버지를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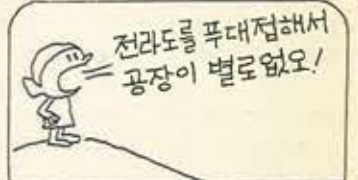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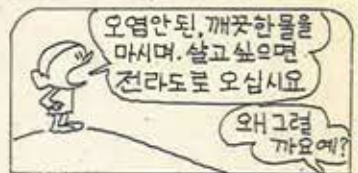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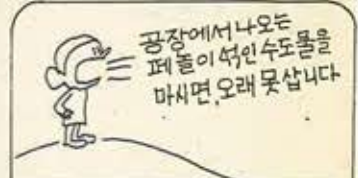
의고 긴 고통이 잠잠하던 어느 날 그는 성령 새미나를 통해 주님 앞에 통회와 감격의 눈물을 흘린다. “주님, 부질없는 말로 당신의 뜻을 가리운 자, 바로 저였습시다.” “나는 내 안에 살아 계신 성령의 힘으로, 새사람으로 변화되어감을 느꼈습시다. 기둥에 부딪치면 웃음이 나오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 ‘감사합니다. 주님!’ 하고 기도할 수 있었으니까요.” 불행한 집안이 신앙의 가정으로 변화되면서, 아내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그는 82년 2월 상경, 4년간 걷는 법에서부터 점자 해독, 지압, 침술을 배워 자격증을 땀다.



돈과 도시의 유혹을 뿌리치고 산골에 사는 그는 지금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하다. 왜냐하면 고통으로부터 해방된 그는 이웃을 위해 기쁘게 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맹인이 되자 영혼의 눈이 열려 하느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본당신부를 도와 예비자를 가르치고 점자통신성서를 정확하게 타이프를 쳐 성서를 가르치는 교사, 그는 말씀과 지압과 침술로 인간의 앓는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며 부활을 증거하며 살고 있는 것이다.

‘주 참으로 부활하셨도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요십이 (921) 김병오



남원 성당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본당

교구소식

※ 주교님 성성 1주년: 4월 3일,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주시시오.

1. 성서교실 및 통신성서 수강생 모집: 4월 8일까지 본당 사무실에 문의바랍니다.

신자들의
소리

너와 나의 길

김 정 희(크리스티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1요한 3,16-17).

세상 안에 사는 모든 형제 자매들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친교를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이 글을 바칩니다.

언제나 불만과 불평만을 늘어 놓았던 지난날을 반성하며 주님께서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잠시 생각해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쏟아지는 은총들—찬란한 햇빛, 상쾌한 아침 공기 등 또한 새벽마다 드릴 수 있는 찬미와 감사의 미사,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시는 성체와 말씀—참으로 행복과 기쁨을 안겨다줍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것만 같습니다. 더욱 비인간화되어가고 사회 속에서 참된 인간성을 상실하여 많은 사람들 특히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점점 인간이 되어야 할 참모습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기심, 개인주의, 권력, 명예 등 각자 소유해야 할 것에 매달려 점점 개인화되어가고 불신이 조장되고 뿔뿔이 흩어지는 분열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들이 비공동체적인 모습에서 공동체적인 인간, 진실된 인간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으니 그 길은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만큼 당신 자신을 낮추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제자들을 섬기신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바로 이 길만이 우리가 참된 인간이 되는 길이며 비로소 나아가는 길이며 생명을 얻는

우리의 가까운 가정 공동체 안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의 결점을 참아주고 용서하고 나누며 섬기는 것입니다. 섬길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될 것이고 우리의 본 모습인 진짜 인간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속한 가정, 직장, 학교, 사회 공동체 안에서 풀지가 되어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잘 따르는 첫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사회는 조금씩 일치되고 일치된 공동체 안에서 비로소 서로 사랑하게 되고 아름다운 인간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삼위일체 공동체 이시며 참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로 섬길 때의 삶이 부활을 사는 삶이며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영원히 살아 계시고 사랑이 전부이신 하느님께로 드높이 마음을 돌리고 구원의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시다. 오늘 우리 작은 공동체 안에서 이웃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너희 사이에서 누구든지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러 온 것이다”(마르 10,43-45) 하신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언제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보화차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해야 하겠습니다.

알고 봅시다



엄마들을 위한 영화

‘부활의 힘’

일시: 1991년 4월 15일 오후3시

장소: 교구청 별관 1층 소강당

회비: 1,000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베드로 사도가 함께 갇힌 소년에게 본인이 체험한 예수님을 생생하게 가르쳐준다. 예수의 수난과 죽음을 보고 실망에 빠졌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완전히 변화되었다.

* 부활시기에 권해드리는 책

와서 아침을 들어라

성체성사는 손수 주님이 마련하신 식탁의 성찬이요 또 와서 아침을 들어라고 주님이 직접 초대해주시는 자리요 나누어주시는 나눔의 식탁이다.

유광수 지음 2,500원 성바오로출판사

마음으로 봅시다

명상의 몇 마디, 되돌아봄에 순간 등 저마다 차이를 찾고 자기 삶의 의미를 찾는데 보탬이 된다.

A. L. 볼링/오지영 1,500원 가톨릭출판사

*** 노송동** 본당신부 82-9663 사무실 82-9661 주임신부 박 진 랑
보좌신부 82-9664 수녀원 82-9662 보좌신부 주 록 성
사목회장 조 승 남

- ※ 주 예수 부활하셨도다 알렐루아!
1. 여성 34차 꾸르실로: 4월4일~7일 윤경자, 손정순.
2. 모임: 성심회, 성가대 월례회-4월3일 어머니미사후 성시간-4월 저녁7시30분, 반회장 모임-5월 전10시30분.
3. 병자 봉성제는 4월달에 없습니다.
4. 축! 결혼: 7일 12시 신랑-전종근(안토니오), 신부-이미숙
5. 금주 청소: 남노1·2반 차주청소-남노3·4·5반.
6. 성미주머니와 저금통을 아직 내지 않으신 가정은 빨리 내주세요.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 병 한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신 일 균

1. 회장단 회의: 31일 저녁미사 후.
2. 구역분과: 2일 오전10시.
3. 일일회: 3일 오후6시.
4. 성체강복: 첫주 목요일 저녁미사 후.
5. 자모회: 4일 오전10시.
6. 사무장·사무원 교구 소총관제로 4월3일-4일 사무실 휴무.
7. 울드레아: 6일 저녁미사 후.
8. 대견회: 7일 공식미사 후.
9. 사모회: 7일 저녁미사 후.
10. 할 막달레나수녀님 본원 피점: 4월2일-11일까지.
11. 성당청소: 4월6일 의덕의 거울Pr, 셋별Pr.
12. 금주 전례: 해설-오교성 독서·봉헌-신일균 씨 부부
차주 전례: 해설-정현자 독서·봉헌-송철수 씨 부부

***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양 석 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김 종 석

- ※ 축 예수 부활: 모든 가정에 예수 부활의 영광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사목회.
1. 부활 경축행사: 공식미사후. 2. 사목회: 6일(토) 저녁미사후.
3. 꾸리야: 다음주 공식미사후.
4. 교무금 납부의 날: 매월 첫주(다음주) 월납제 꼭 지켜 주세요.
5. 사순절 저금통: 봉헌해 주세요-각 구역, 반장님 빠짐없도록 수고해 주세요.
6. 금주 전례: 해설-이승복 독서① 최상운 ② 김갑자
봉헌-이기봉, 이준희 씨 부부
차주 전례: 해설-유만순 독서① 김봉길 ② 이준봉
봉헌-오철규, 하태중 씨 부부
7. 등반대회: 4월5일 성가대, 청년회. 8. 감사: 감사화분 봉헌-김미남(무시아).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서 석 기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 명 웅

- ※ 알렐루아! 알렐루아!! 오늘은 예수부활 대축일!
1. 회의: ① 사목회-4월10일(수) 저녁미사후 ② 자모회-4월9일(화) 오전10시30분 ③ 성심회-4월13일(토) 오후2시.

2. 알릴: ① 반모임-4월10일(수) 오후8시 14분 ② 아치에스 행사-4월7일(일) 오후2시 ③ 교무금-전년도 교무금미납자 완납바라며 91년도분 미납입자 신일바랍니다. ④ 꾸르실로수강-여성제34차 정정회(까리따스) 자매님, 임시정(에스텔) 자매님 주님의 많은 은총받으시기 바랍니다(4월4일-4월7일까지).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조 정 오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 직 한

- ※ 알렐루아!! 주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도다.
1. 사목회·사라회·요셉회·막달레나회: 공식미사후.
2. 구역장·반장 모임: 4월3일(수) 오전11시.
3. 미사시간 변경: 저녁미사 8시(4월2일부터).
4. 본당울드레아: 2일(화) 미사후.
5. 신자 재교육 교리: 매주 토요일 오후7시30분.
6. 청소봉사: 주공3단지APT 서편.

*** 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이 수 현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강 명 구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 안 득 수

- ※ 축 예수부활.
1. 울드레아: 오늘 공식미사후.
2. 성가정회: 4월1일 오전11시.
3. 성체강복 및 조배: 4일 오전10시.
4. 병자방문: 5일.
5. 견진자 교리: 4월부터 일반-매주 금요일 저녁미사후, 학생-매주 토요일 오후4시.
6. 예비신자 모집: 4월7일부터 교리시작 예정.
7. 재속글라리화제회: 다음주 오후1시30분.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 재 후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김 광 탁

- ※ 축! 예수부활: 이날이 주께서 마련하신날 이날을 기뻐하자. 출들을 추자. 부활준비에 수고해 주신분께 감사드립니다.
1. 여성 34차 꾸르실로 강습회: 4일~7일, 장요셉 수녀님, 원옥자, 박순남, 박연희. 2. 성시간 및 성체강복: 4일 후7:30.
3. 유아세례: 6일(토) 후2시.
4. 구내가족 엠마우스: 1일-3일.
5. 비신자 아파 초대의 밤: 3일 후7시30분(사제관으로).
6. 아치에스 행사: 7일 후2시30분, 협조단원도 함께 참석.

7. 회의: 2일-자모회(전10시), 구역반회장 월례회(전10시30분), 3일-성심회(전10시), 6일-사목회(후7시30분) 시간 엄수.
8. 신축현금 현황: 성전건축모금액-5억원, 신입액-8,800만원, 현재액-5,900만원.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 서 석 구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 박 영 근

- ※ 축! 부활-주님의 평화가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 나눔잔치: 오늘 부활 대축일 미사후.
2. 사목회: 다음주 공식미사후.
3. 자모회: 다음주 공식미사후.
4. 돼지 저금통 회수: 다음주일까지 성당에 가져 오십시오.
5. 본당 가꾸기: 다음주일에 전신자 함께 꾸미겠습니다. (준비물: 삽, 쟁이, 호미 등을 준비해서 가지고 오십시오).
금주 전례: 한병갑 독서·봉헌-장정성, 박영근
차주 전례: 김옥희 독서·봉헌-최정진, 김현균.

*** 효자동**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유 중 환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이 수 현
사목회장 황 수 석

- ※ 축 부활대축일 미사안내: 부활성야미사-(토) 밤10시, (일) 9:30, 11시, 7시 음식바자회가 있습니다. 9:30미사후부터.
1. 구역봉사자 모임: 4. 3(수) 오전10:30. 2. 성모기사회: 4. 6(토) 오전10시. 3. 인나회: 다음주(4. 7) 11시미사후. 4. 울드레아-4. 7(일) 저녁미사후(환영식 겸함). 5. 아치에스행사: 4. 7(일) 오후2시-5시. 6. 유아세례: 4. 14(일) 오후5시. 7. 까리따스: 다음주(12일) 오후3시. 8. 오늘부터 부활 삼중을 바칩니다(기도서 9쪽). 9. 부활관공성사 옷보신분 미사 전후에 보십시오. 10. 성미와 돼지 저금통을 속히 봉헌바랍니다.

*** 효자우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박 창 신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김 홀 두

- ※ 축, 예수부활.
1. 요셉회: 공식미사후. 2. 여성분과회: 5일(금) 어머니미사후.
3. 꾸르실로스타 단합대회: 5일(금) 오전8:00 장소: 완도대교.
4. 부활절 특별헌금 있습니다.
5. 세대별로 가족사진 3장씩 제출 바랍니다.
차주 모임: 사목회, 꾸리아.
신축현금 총신입액: 봉헌액:
금주 전례: 해설-임창수 독서① 김홍두 ② 정영호
기도① 박병대 ② 이영자
차주 전례: 해설-김광년 독서① 엄정준 ② 임요정
기도① 이필진 ② 손예현

당천동에 유혈한 도색도 30년을 그 지역 신자들을 위해 살아온 시간 속에 어머니 내음이 물씬 풍긴다. 그래서인지 처음으로 작은 집 도통동 성당(90년)을 임태해낸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었던 것 같다.

1885년~1886년 장수, 진안 등지에서 박해로 인해 피난해온 신자들이 산재하여 살아오다가 장수에서 이사해온 두 신자에 의해 1934년 장수 본당 소속 남원 공소가 설치되었던 것이 이 본당의 시작이다. 장수 본당에서 파견된 전교회장들의 열성과 노력으로 예비신자가 날로 늘어났고 천주교의 이름도 모르던 읍민들의 성교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일년 만인 1935년 6월 12일에 본당으로 승격되었고, 초대 주임

석윤학 신부가 부임하여 신설 본당을 위한 부단한 노력으로 학원을 설립, 여학생들의 문맹 퇴치와 교리 야학을 개최, 교리를 가르치는 등 교육사업으로 전교를 시도한 결과 당시 신자수 230명과 3개 공소를 갖게 되었다. 그후 8대 주임 박성운 신부가 남원 읍내 쌍교리 지금의 성당터를 매입하고 성당과 사제관을 착공, 1958년 9월 23일에 낙성을 보아 예수 성심께 봉헌하는 미사와 축성식을 성대히 거행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금년에 긴 본당 역사상 처음으로 이 본당 출신 새사제 김진철 신부를 맞게 된 본당 신자들의 감회는 무척 깊다. 이젠 역사

지역 신자들을 위해
한결같이 살아온
어머니 내음이 풍기는 곳



- 대상-중3~성인.
5. 성지순례 안내 봉사자 모임: 4월2일(화) 오전9시30분 흥보국.
 6. 성모의 푸른군대 피정: 4월4일(목) 10시-16시 덕진 성당 미사도구, 도시락 지참.
 7. 성모의 기사회: 4월6일(토) 오전10시 효자동 성당.

- **성소모임** 성바오로딸수도회: 4월7일 오후2시 성바오로 서원 2층 (0652) 252-3398. 살레시오수녀회: 4월7일 오후2시 연지동 성당 수녀원 (0681) 33-2578. 사랑의 새튼수녀회: 4월7일 오후2시 동산동 성당 수녀원 (0652) 77-4212. 까리따스 수녀회(피정): 4월13일-14일 본원, 문의-덕진 성당 수녀원 (0652) 72-1222.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창조 질서 보전-(9) 환경문제 토론 기회를 가집니다.

소속 단체 회합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회원들과 함께 생활 실천 사항을 서로 나누도록 해봅시다.

비비안 · 빅 맨

남문 전문점

최 보 근 (루시어)

전주시 완산구 전동 남문 옆

☎ (0652) 82-0891

오성 에어로빅

유 연 화 (안젤라)

김 택 천 (바오로)

☎ 72-3709, 77-0310

(호반초 도서관 건너 뒤
유도파워 맨션 옆)

관라인 여성 헬스

건강 체조·요가·에어로빅

이 국 화 (데레사)

이리 순화동 현대아파트 옆

☎ 54-9009

살레시오 여를 캠프

청소년들의 올바른 신앙태도와 교회 공동체 정신 함양의 기회를 위한 여름 캠프를 매년과 같이 운영함. 예정이기에 관심있는 단체들과 신청을 접수함.

· 일시: 91년 7월 22일 ~ 8월 11일 사이 (2주간)

· 장소: 91년 6월 30일까지 · 대상: 각 본당 중·고등학교

· 신청 및 문의: 600-060 장수제향사 복자 신앙사 213-9 장수 살레시오 수도원 캠프 담당 주사

☎ (062) 55-0332, 524-1245

엄마와 아가의 축복받는 방



출산 준비물, 백일, 돌 선물 및 유아복

☎ 80-1305

전주 코아백화점 3층

최 낙 영 (홍지노)

안 정 희 (루시나)

맥주의 참맛을 즐기십시오.

카 이 저 호 프

* 아르바이트생 모집 (신자 환영)

☎ 85-8801

(합성여관 시거리)

생산직 사원 모집

당사는 통신기기용 전원부품 생산업체로서 성실한 여자 사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인원: 00명
2. 자격: ① 학력 제한없음.
② 만16세 이상 35세 미만
③ 야간 근로 학생 및 초보자 환영
3. 제출서류: 자필이력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4. 모집기간: 1991. 3. 31 ~ 4. 7 까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로 수시 전화 문의 바랍니다 (청각 장애자도 가능합니다).

알 · 에 프 · 하이텍

전주시 금성1동1556-3 ☎ 253-3697

우리반두

모범업소 (조리사의 집)

박석환 (조리사) · 김명숙 (엘리시벳)

전주시 서농동 632-11 (중앙성당 옆)

☎ 85-8848

해외 이민·방문

여 행 안 내

☎ (0654) 445-5226

445-2276

이 태 교 (임마누엘)

김 순 철 (프란체스카)

재단 법흥공사 군산 지사

람다예 미술 학원

· 유치부 원아 모집

· 국교부 미술 수강생 모집

수채화, 크레파스화

(원장과 미술 전공 교사 지도)

효자동 223-8355

원장 박 경 화 (마리아)

신부 부케 전문점

진 선 미 꽃 집

이 마리아

범 디도

☎ 84-2628

데레사 종합화장품

송희 꽃꽂이 전주지부장

꽃꽂이 회원 수시 모집

서 데레사 (순옥)

☎ 83-5319

장소: 구 성모병원

들어 비난과 모함의 화살을 퍼붓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예수께서 이른바 종교 고유의 영역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만 전념하고 사셨다면 사람들이 그분을 비난하고 박해하며 결국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는 일이 일어났을 것인가? 그분이 각 사람들에게 내면 세계의 평화나 설교하고, 자신의 사적 생활 문제에 깊이 파묻혀 살도록 가르치셨다면, 그분을 따르는 일과 십자가를 각오하는 일을 그처럼 긴밀한 관계로 맺어 놓으실 필요가 있었을까? "나를 따르려면 누구든지 자기를 끊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말씀이 아직도 의미가 있었을까?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권위주의적 정치체제하에서 우리나라가 산업화의 과정을 급속도로 진행시키는 동안 가톨릭 교회는 현실 사회문제에 나름대로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필요한 경우에 이를 행동으로 옮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통과하는 동안 교회의 현실 참여의 방법과 때로는 현실 참여 자체를 둘러싸고 신앙인들 사이에서도 걱정, 우려, 비판의 소리들이

적도로 남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듣고 본 대로 요한에게 가서 알리라. 소경이 보고 절름발이가 제대로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마태 11, 4-5). 이런 점에서 교회가 증산증화 해간다는 최근의 사회조사 결과는 그것이 혹시 이른바 소외 계층을 교회도 같이 멀리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점에서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넷째, 우리는 사회문제에 관한 교회의 참여 방식을 두고 전교회적 수준에서 이를 평가하고 반성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할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 안에서 교회가 빛과 소금 그리고 산 위에 세워진 도시로서의 본래 역할을 뚜렷히 할 수 있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다섯째, 이를 위해서는 교회의 성원들이 사회문제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공개적으로 토론하며, 자신의 의견을 자유로이 개진함으로써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진리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는 그동안 가끔



숲정이 산책



너희들은 부활하지 마라!

※ 전문 청소 용역 전문업체
라자로 미화 용역사
• 취급업무 ① 아파트 및 각종 건물, 외부 유리, 타이유 청소 전문
② 청소 전문 요원 파견 근무 및 각종 사무실 내부 바닥 대청소, 왁스 작업 일체
• 연락처: 전주 숲정이 성당 내
• 전 화: (0652) 253-3765, 251-9375
대표 양 동 술 (리자랑)

축/개업
진선미 웨딩드레스
가장 우아하고 세련된 웨딩드레스 맞춤 판매 대여 부케 예뻐 의상 연출복 신부화장 이리시 문화예술의 집 앞
☎ 52-1187
정기연 (치털로), 황인덕 (마그리)

양재 · 한복 · 휴패션
노라노 학원
※ 휴패션 강사 구함:
의상학과 졸업, 전주교 신자
원정 김 형 문 (마그리안나)
동부시점원 · 민정당시점
☎ 86-2715

공인 중개사
송영은 (돈보스코) 사무소
☎ (0652) 87-0088
83-0087, 83-0088
무선호출기 201-7220
전주시 서서학동사무소 옆

신사복, 결혼예복 전문
원 이 양 복 점
금영 1동 남도주유소 앞
☎ 252-2763
장 원 배 (아오스텔)
김 원 숙 (힐 레 나)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 · 드레스마술 · 대여
최 윤 경 (유리안나)
미용실 · 미용학원
학생수시모집 · 해외외수생모집
이리시 중앙동 3가 7-1
☎ 3-2496 · 2-8653

홍부의 정성으로 만들었습니다

놀부보쌈

오 재 천 (안드레아)
정 봉 교 (마그리안나)
효자동 우진아파트 앞
☎ 223-0297~8

사 원 모 집

당사는 호남 유일의 카세트 테이프 생산 수출업체로서 성실하고 유능한 새일꾼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부문: 생산직 남녀사원 00명
2. 구비서류: ① 이력서 1통, ② 주민등록등본 1통
3. 자격: 중졸 이상 학력자로 신체 건강한 여성
4. 기간: 1991년 4월 30일
5. 기타: 통근차 운행, 식사 제공, 기숙사유

☎ 211-7411
(주) 쏘렉스 총무부

고원우유, 요구르트, 요거트, 클피스
교우 여러분 건강합시다
고원우유 신동 대리점
☎ 54-1327
신 속 배 달
한 원 규 (아고보)
☎ 855-7901

수 강 생 모 집
초 · 중 · 고등부 · 일반부
장소: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55-4
위치: 한일 고등학교 위구 (구사재관)
서신 서예 학원
원장 차 동 복 (베드로)
전화: 75-9529
야간: 76-0640

천주교 제주교구 운전기사 사도회
제주도에 오셔서 택시를 이용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을 성의껏 모시겠습니다.
※ 최소한 15일 전에 연락바람
연락처: (064) 55-5151
(사도회 사무실)



자신만을 맴도는 관심의
테두리에서 해방되어
이웃과 사회를 향해 눈길을 돌릴 때
참으로 부활하신 분의
생명을 느낄 것입니다



발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사회문제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이라는 주제를 두고 숙고하는 것은 보편 교회의 관심이 지금 이 문제에 쏠려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외에도 우리 한국의 사회 현실이 우리로 하여금 이를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을 수 없도록 강요하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아주 최근의 사건들만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해보아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뇌물 외유 사건, 일부 대학 교수들의 입시 부정 사건, 권력의 핵심부 깊숙이까지 개입된 수서지구 특허 분양 사건, 군산의 인구 밀집지역에 주민들과의 협의 과정없이 설치하여 현지 주민 절대 다수의 반대운동에 부딪치고도 계속 밀어붙이는 이른바 티.디.아이. 공장 사태, 그리고 돈을 얻어내기 위해서 9살 난 어린이를 유괴하여 끝내 죽여버린 사건 등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심한 중병에 걸려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급속도로 또 속속들이 황폐화하는 사회 속에서 어디에 희망을 두고 살 것인가? 누가 손을 뻗쳐 빈사상태에 놓여 있는 이 사회의 건강을 회복시켜줄 것인가? 정치계? 종교계? 교육계? 문화계? 그 어디에서도 뚜렷한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바로 몸 담고 있는 종교계는 어떻습니까?

1989년 말 현재 전라북도 각 종교 단체들이 주장하는 자기 교단의 신도수를 모두 합하면 358만여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전라북도의 실제 인구는 215만여명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전국 통계에서도 각 종교 단체들이 주장하는 자기 교단의 신도수가 인구 전체의 수를 훨씬 앞지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종교 일반은 서로 자기 세력의 확장과 그 과시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고 있으며, 종교 인구가 그렇게 많다고 하는 사회가 이토록 심각하게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표류하고 있는 것을 보면, 종교계 자체가 일반적으로 크게 잘못 가고 있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어디에 이들 종교의 잘못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한마디로 그것은 관심의 방향이 밖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지 못하고, 자기 안에 갇혀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종교를 찾을 때 가장 많이 기대하는 것이 '마음의 평화'임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여기서 출발하여 자신의 건강, 집안의 안녕, 사업의 성공 등 요컨대 이기적 성향을 만족시키려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몰려들었던 사람들도 그 대부분이 처음에는 이런 수준의 기대를 가진 이들이었고 주님께서서는 거기서부터 일을 시작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놓으셨음을 생각할 때, 사람들이 처음에 소박한 기대를 가진다고 하는 사실 자체를 과히 나무랄 필요가 없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의 그런 기복 신앙적 경향을 바로잡아주어야 할 종교 지도자들마저 오히려 그런 수준의 구원을 약속하고 또 실현시켜줄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함으로써, 종교 인구가 아무리 늘어나도 사회는 점점 더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기도를 해도 내 고통, 내 문제, 내 집안, 내 사업만을 걱정하는 정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요란한 종교 체험을 해도 결국 자기 한 몸 속에서의 일이지가 일쑤인 것입니다. 이런 풍조는 한 종교를 집단으로 놓고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사회를 건강하게 하기보다 개인적 이기심을 집단적 이기심으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씻어버릴 수가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이런 틈을 타서 조악한 말세론까지 등장하여 역시 나 한 몸만이 재앙에서 빠져나갈 길을 생각하게 하는 잘못된 종교심을 한껏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뒷면 계속)